

엘리자베스 테일러(1932 -)



오드리 헵번(1929-1993)



그레고리 팩(1916-2003)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비슷비슷해 집니다.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여
이렇게 저렇게 배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은 비슷하게 되지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5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2월 31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기도일기



주님, 제게 께가 아니라
지혜를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약이 아니라
은유를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면서 느끼는 크고 작은 아픔들이
분노나 서글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슬픔으로 다가와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똑똑해서
남을 피곤하게 하기보다는
부족한 듯해도 푸근함을 지닌 사람이고 싶습니다.

재주는 피우진 못하더라도
마음 하나 만큼은 늘 한결갈게 하여 주십시오.
눈치로 남을 대하기보다는
사심 없는 친절로 나누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웬지 자꾸 남이 미워지려 할 때
그 사람도 역시
나와 같은 그리움을 지닌 가난한 사람임을.

그리하여 나의 그리움이
당신을 찾아 밤낮을 뒤척이다,
한적한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들랑
미운던 사람, 고운던 사람, 그림던 사람

그들 모두 결국은 반갑고 꼭 필요한
이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께서서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평범한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을 원하신다

◀인품따라 행하기▶

칭찬해야 할 세 가지
절약
근면
순발력

송 구 영 신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옹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60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52(계 21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찬 송 Hymn	364장	
기 도 Pray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시편90:1-12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귀중한 삶, 귀중한 세월	김성국 목사
특 송 Hymn		김 우 영
통 성 기 도	2005년 감사. 2006년 복 주심을 위한 기도 1. 감사. 2.가정.직장.사업 3.교회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찬 송 Hymn	358장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005년 교회생활 1.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금 5:55 청년부:토 오후 2시

2006년 교회생활

『2006년』 신앙목표』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내는 기도생활” (마태 7:8)

『표어』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실천방안』

하루에 7분 기도하기

- * 매일 가족 위해: 5분 기도
- * 매일 교회 위해: 1분 기도
- * 매일 남을 위해: 1분 기도

◀착한 시인▶ 청년 그리스도께
유안진

술한 남성을 짝사랑한 후에
가을수풀 되어버린 내 머리터럭
훅먼지만 날리는 사막 같은 가슴

그 어디쯤서
그대는 발견되었는가

내 미처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던 귀
그 누가 열어주어

아아 한스러운
이 몰골
이 행색

그대 어찌
이제사
내 앞에 뵈었는가

청년 그리스도
나의 사랑아

마음으로 몸으로 세월이 지나
감이 느껴집니다. 서럽지는 않
지만 기운 빠지고 마음대로 움
직여지지 않음에 불편함을 느
깁니다.

한 쪽이 점점 멀어지기에 또
다른 한 쪽은 옷칠 하듯 윤기
가 나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
안의 영혼은 덧칠 해야 빛이
나는 그런 영혼이고 싶습니다.
인내, 용기, 소망 이런 믿음의
덕목들이 덧 입혀져 주님을 보
는 눈이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나이입니다.

믿음의 눈은 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청년 그리스도를 바라보
고 싶습니다.